

부시대통령, 총예산 300억 달러 규모의 에이즈 퇴치 5개년 계획 발표

에이즈와의 전쟁을 위한 미국의 공약 유지

부시대통령은 금일 전세계 에이즈 퇴치를 위한 미국 정부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시대통령은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 긴급계획(PEPFAR)'의 근거가 된 '2003년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 법'을 재승인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시대통령은 특정 질병의 퇴치를 위한 국제보건구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종전의 150억 달러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의회가 2008 회계연도 정부예산을 승인한다고 가정할 때, 300억 달러 예산이 책정될 경우 미국은 10년 동안 에이즈 퇴치를 목표로 총 483억 달러를 집행하게 된다.

부시대통령은 또한 PEPFAR 실행 3주년이 되는 2007년 3월 31일까지 미국은 100만 명을 넘는 아프리카인을 포함, 15개 중점국가의 110만 명에 대한 치료를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부시대통령은 PEPFAR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초당적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원칙과 일관성을 이루는 법안의 재승인을 요구했다.

PEPFAR의 성공은 자원제공 약속과 성과에 초점을 맞춘 국가소유(country-owned) 전략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에 기초하고 있으며, 정부, 비정부기구, 종교단체, 지역사회단체, 민간분야와의 파트너십의 힘(Power of Partnerships)을 통해 달성되었다. 새로운 '파트너십 협약(Partnership Compact)' 모델의 전면적 실행과 함께,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있어 다음 단계는 생명을 구하는 치료와 종합적인 예방프로그램 그리고 고아나 불우 아동과 같이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보살핌의 지속적 확대이며, 다음과 같이 지원할 것이다.

- 250만 명 치료
- 1천 2백만 건이 넘는 새 감염의 예방
- 고아와 불우아동 5백만 명을 포함해, 1천 2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대한 보살핌

새 계획, 지속과 확대를 강조

지속 — 에이즈 치료, 예방, 관리는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미국은 PEPFAR 프로그램 첫 실행 5년 동안 혜택을 받은 이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다.

확대 — PEPFAR는 보건시스템 강화, 말라리아, 결핵, 모자보건, 깨끗한 물, 식량 및 영양, 교육, 기타 필요 사항들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PEPFAR는 치료, 예방, 관리에 있어 비상상황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대응으로의 전환을 강조할 것이다.

1. **파트너십의 힘** — 미국은 '파트너십 협약'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의 자원과 기타 공약들은 에이즈 퇴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제능력에 따라 파트너의 에이즈 및 보건시스템에 대한 투입 자원 증대를 통해 의회의 재승인 목표 달성
- 보건인력 확충, 남녀평등, 고아의 권리 보호, 효과적인 에이즈 상담 및 검사 등과 같이 파트너십 협약을 개발하면서 파악해야 할 핵심 분야의 자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및 관행의 실행

새 파트너십 협약은 오늘 부시대통령이 정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파트너십 협약이 없으면, 2 백만 명이 새로 HIV에 감염될 수도 있다. 또, 추가로 고아와 불우아동 40 만 명을 포함해 1 백만 명이 관리를 받지 못할 것이다.

2. 다자간 파트너 - 미국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기금(GFATM)의 최대 기부자로서, 이와 같은 다자간 노력에 있어 지도력을 유지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모든 PEPFAR 파트너에게 요구되듯이, GFATM이 강력한 책임성 및 투명성 구조를 만들어 PEPFAR의 설립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시대통령은 선진국과 저개발국, 특히 많은 새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진국에 대해 에이즈 퇴치를 위한 기부금 증액 요구를 되풀이했다. 에이즈는 세계적인 위기로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은 현재 다른 모든 선진국의 에이즈 퇴치 자원을 합한 만큼의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함께 실천해야, 에이즈와 같은 세계적 전염병의 기세를 꺾을 수 있다.

금일 대통령 활동의 배경

부시대통령은 2003 년 연두교서에서 PEPFAR을 발표했으며, 의회로부터 강력한 초당적 지지로 승인을 받은 집행 5 년간 150 억 달러 규모를 지출하는 인가 법안에 서명했다. PEPFAR 인가는 2008 년 회계연도 말에 만료된다. 미국의 주도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와 파트너들에게 신속한 지출규모 확대의 지속을 보장하며, 새 계획의 혁신적 측면을 실행에 옮길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이 법의 재인가가 필요하다.

PEPFAR 성공의 계승 및 발전

자원 - 부시대통령이 요청한 2008 회계연도 예산의 시행과 함께, 미국은 당초 약속했던 5 년간 150 억 달러의 지원을 초과해 183 억 달러를 PEPFAR에 제공할 것이다.

성과 - PEPFAR는 2 백만 명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고, 7 백만 건의 추가 감염을 예방하며, 고아와 불우아동을 포함해 1 천만 명을 관리하는 원대한 5 개년 목표(2-7-10 목표) 달성에 순조롭게 다가서고 있다.

• **파트너십 협약과 함께하는 대통령의 새 제안:** 2 백만 명에 대한 생명을 구하는 치료 계속, 추가로 50 만 명에 대한 치료 지원, 초기 단계에서 예방한 7 백만 건의 HIV 감염 외에 추가로 5 백만 건을 예방, 고아와 불우아동 4 백만 명을 포함해 1 천만 명에 대한 관리 지속, 그리고 1 백만 명이 넘는 고아 및 불우아동을 포함한 230 만 명에 대한 추가 관리 지원

* **현재의 중점국가:**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이아나, 아이티, 케냐,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우간다, 베트남, 잠비아

* **대통령 영부인은 2007 년 6 월 25 일부터 29 일까지 세네갈, 모잠비크, 잠비아, 말리를 방문할 예정이다.** 모잠비크와 잠비아는 PEPFAR의 중점국가이다. 이들 국가에 대한 영부인의 방문은 미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며 에이즈 예방, 관리, 치료에서의 진전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